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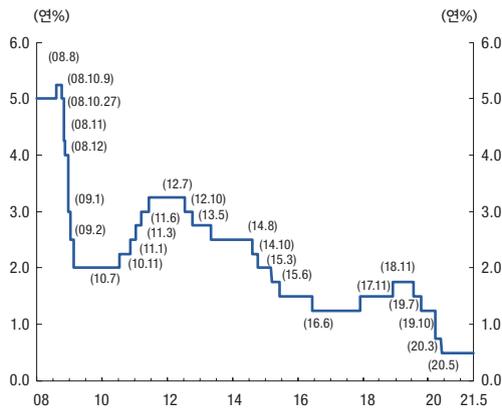
1. 기준금리	51
2. 금융중개지원대출	53
3. 시장안정화 대책	55
4. 여타 통화신용정책	58

1. 기준금리

기준금리 연 0.50%로 운용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세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주: 1) () 내는 기준금리 조정월

자료: 한국은행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4월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

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는데,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의 부진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이러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다만 그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백신접종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아직 높기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 지속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5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국내경제의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향후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접종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회복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를 보면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큰 폭 상회하는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2%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치(1.3%)를 상당 폭 상회하는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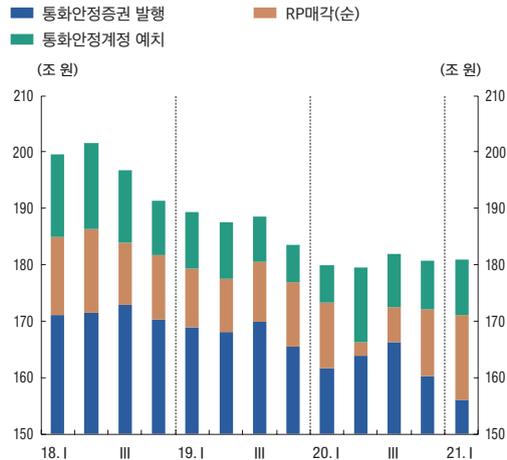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⁵⁶⁾ 등으로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단기자금 조절수단인 RP매매⁵⁷⁾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⁵⁸⁾를 확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고채 발행규모 증가에 따른 채권 수급부담을 고려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⁵⁹⁾를 당초 계획 대비 축소⁶⁰⁾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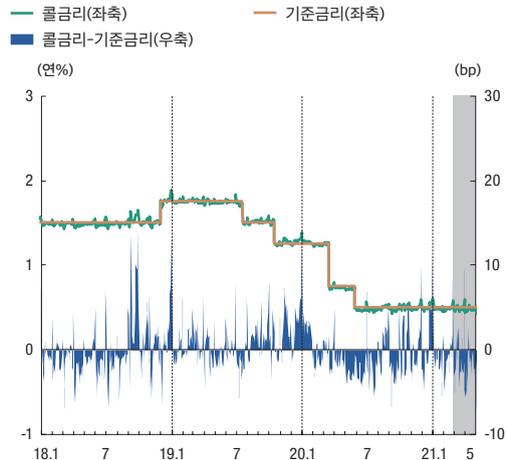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¹⁾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기준금리 및 콜금리



자료: 한국은행

56) 1/4분기 금융중개지원대출(평잔기준)이 전분기대비 3.1조 원 증가하였다.

57) 1/4분기 RP순매각(평잔기준)은 전분기대비 3.3조 원 증가했으며 4월에는 전월대비 4.1조 원 증가하였다.

58) 1/4분기 통화안정계정 예치(평잔기준)는 전분기대비 1.0조 원 증가했으며 4월에는 전월대비 2.5조 원 증가하였다.

59) 1/4분기 통화안정증권 발행(평잔기준)은 전분기대비 4.2조 원 감소했으며 4월에는 전월대비 5.1조 원 감소하였다.

60) 3월 중 금리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통화안정증권 입찰규모를 계획 대비 일부 축소하였다.(3월 17일 2년물 2.2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3월 22일 1년물 0.6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축소)

2. 금융중개지원대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걸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 하였으며, 그 중 16조 원⁶⁾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하여 한시(2021년 3월 말) 운영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동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2021년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취급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4월 중 26.4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17,287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2020년 10월 신설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4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액이 1.6조 원, 이용업체 수는 13,604개로 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5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2.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3조 원이며, 한도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4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25%이다.

표 II-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¹⁾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²⁾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2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소상공인 지원	3.0	0.25
합 계	43.0 ³⁾	-

주: 1)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 (2017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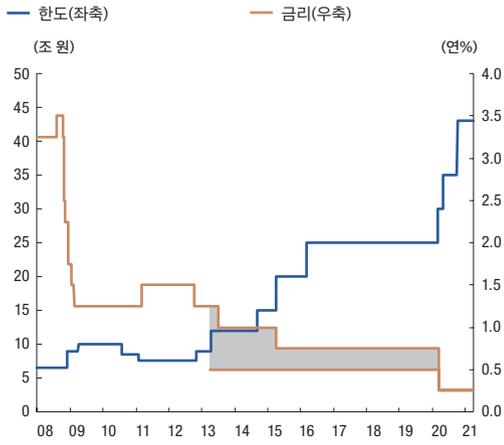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3) 한도 유보분 0.1조 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6) 나머지 2조 원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II-4. 한국은행 금융증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자료: 한국은행

3. 시장안정화 대책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11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 데 이어 금년 2월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증가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총 5~7조 원 내외의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2월 26일)하였다. 이후 3월 9일(2.0조 원)과 4월 28일(1.0조 원), 그리고 6월 3일(1.5조 원) 세 차례에 걸쳐 총 4.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였다.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지속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⁶²⁾하기 위해 설립(2020년 7월)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2021년 1월 12일 1.78조 원 규모의 제2회 대출⁶³⁾을 실시하였다. 2021년 4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3.3조 원⁶⁴⁾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표 II-2.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¹⁾²⁾

(억 원, %)

신용등급	금액	비중
AA(A1)	10,000	30.4
A(A2)	16,961	51.6
BBB(A3)	5,920	18.0
합계	32,881	100.0

주: 1) 2021년 4월 말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2020년 4월~2021년 3월)으로 시행한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⁶⁵⁾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2020년 4월~2021년 3월)으로 시행 중인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⁶⁶⁾⁶⁷⁾하였다.

62) 2020년 12월 24일 한국은행은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기한을 종전 2021년 1월 13일에서 2021년 7월 13일로 6개월 연장하였다.

63) 제1회 대출은 2020년 7월 23일 1.78조 원 규모로 실시하였다.

64) 회사채 2.1조 원, CP 1.2조 원을 매입하였다.

65)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경우 일반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및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 제외되었다.

66)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경우 일반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및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 제외되었다.

67)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의 경우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가 단순매매 대상증권 및 RP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반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및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 RP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은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증권에서 RP매매 대상증권 만으로 축소되었다.

표 II-3.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따른 적격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구분	종료 대상	종료 후
대출 적격담보증권	일반은행채 ¹⁾ , 9개 공 공기관 발행채권 ²⁾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 신용증권, 한국주 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 증권, 특수은행채 ³⁾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일반은행채 ¹⁾ , 9개 공 공기관 발행채권 ²⁾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특수 은행채 ³⁾
공개 시장 운영 대상 증권	단순 매매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특수은행채 ³⁾
	RP 매매	특수은행채 ³⁾ , 일반은 은행채 ¹⁾ ,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²⁾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주: 1)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2)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3)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자료: 한국은행

표 II-4. 코로나19 관련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6월 3일 기준)

구분	정책대응	주요 내용 ¹⁾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 1.25% → 0.50%(0.75%p)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증액	•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 기한 연장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기한 6개월 연장 (2021년 3월 말 → 9월 말)	
	대출금리 인하	• 0.5%~0.75% → 0.25%	
시장 안정화 대책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 실적 : 총 19.43조 원(2020년 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 실적 : 총 3.5조 원(2020년 3월 19일 1.0조 원, 3월 24일 2.5조 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2020년 7월 말 종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증권 확대(2021년 3월 말 종료)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2021년 3월 말 종료)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2021년 3월 말 종료)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국채 단순매입	• 매입 실적 : 총 15.5조 원 (2020년 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 원, 2021년 3월 2.0조 원, 4월 1.0조 원, 6월 1.5조 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 총 한도 : 10조 원 • 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종료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 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매입기한 : 2021년 7월 13일(6개월 연장)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3.56조 원(누적 기준)
	외환시장 안정	한·미 통화스왑	•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 만기 : 2021년 9월 말(6개월씩 2회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주: 1) 음영 표시는 종료 시한이 도래한 대책
 자료: 한국은행

4. 여타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연구도 지속하였다.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 가동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가동된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3월 18일에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가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였다.⁶⁸⁾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기업간 업황 회복속도가 차별화될 경우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산 및 소득 등의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재무상황과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기후 변화가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리스크도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가계·기업 부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68)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확산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대출 현황 및 건전성 관리 실태, 향후 자본확충 및 자산운용 계획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등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그림 II-5. 공동검사 실시 현황¹⁾

(회)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5월
6	5	6	2	1

주: 1) 실시 횟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코로나19 이후 대기업집단의 신용공여 현황,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상의 특기사항 등 경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검사담당 부서장회의, 수검은행 앞 검사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한국은행의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화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하였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 평가, 세계 경제 전망 및 회복촉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에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면서 스왑 목적에 기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더해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추가하였고,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외환부담 안전판을 한층 강화하였다.⁶⁹⁾ 아울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⁷⁰⁾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합의하고 금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 CMIM 개정 협정문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로서 올해 추진할 운영지침 개정 사항은 LIBOR 대체금리 마련,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이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69) 계약금액은 종전과 동일한 100억 스위스프랑/11.2조 원이다.

70)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다.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⁷¹⁾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2020년 10월 신규 가동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대해 PFMI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확대 등에 따른 IT 운영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4월 국내은행(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⁷²⁾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였다. 금년 3월 완료된 CBDC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기본기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7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공동으로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통합하여 2012년 4월에 제정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이다.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추가적인 국제기준을 제정하였다.

72) 지준예치금, 결제성 예금 등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